

기획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공존할 수 없다'

(동연 회칙 11장 98조 4항)

구체성 없는 동연 회칙, 새 동아리 막는 '진입장벽'

모호한 중앙동아리 회칙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국제] 중앙동아리연합회(동연) 회칙 중 일부 조항에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항목은 11장 98조 4항의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본회에 공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사용돼오다가 지난 2013학년도부터 정식 조항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연의 중앙동아리, 가등록 심사는 구체적인 조항에 의한 심사가 아닌 동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를 담당하는 협의체인 동연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대표들과 동연 사무국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동아리의 구성원이 분과장 신분으로 가등록 심사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왔다.

문제는 '같은 성격'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결국 동아리의 동연 입회 여부를 해당년도 대표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4월 파티플랜동아리 'KickinHybrid(키킨)'은 동연 측으로부터 중앙동아리 가등록 심사에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동연 측은 "목적이 겹치는 기존 동아리인 'HAMA'가 존재해 신규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키킨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결국 규정에 없던 의사결정 절차인 '재논의' 과정을 거쳐 이들을 등록시켰다. '키킨'의 박강훈(산업 경영공학 2009) 전 회장은 "과거부터 동연 회칙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동아리들이 중앙동아리를 신청할 때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동연 중앙동아리 가등록 심사 명확한 '규정'보다 '주관성'의존

이에 대해 동연의 유매연(환경학 및 환경 공학 2013) 회장은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금년도에는 협의체 구성원 모두 공정한 심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하며 "만약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차후에는(내년도 회장이 바뀌면) 판단기준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성이 없는 회칙에서 비롯된 이 같은 사태는 최초 중앙동아리연합회 설립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84년에 한 중앙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졸업생 A씨는 "학생회관이 준공되기 전까지 '중앙 썸클'이란 이름으로 교내에 존재 하던 동아리들 간의 연합이 자치 공간 확보 이후 옮겨오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때 동아리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 항목별 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동아리를 대상으로 '중앙 썸클' 내의 동아리를 동연 구성원으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최초부터 '봉사'나 '종교' 관련 동아리들이 중복 성격을 가졌던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에 대해 "2013년도 회칙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부 동아리들 간의 성격 정리가 완료됐다"며 "현재는 동연 내에 성격이 겹치는 동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동아리는 음악선교, 체육선교 등으로 구별되고 봉사동아리 역시 여성관련 봉사, 고아관련 봉사 등 세부 사항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이런 흐름에 대해 '이미 동연에 등록된 기존 중앙 동아리들에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성을 띤 조항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논란'은 당분간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강학점 취소기간', 일주일이면 충분?

수강학점 취소기간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과 정정기간이 끝나면, 신청한 강의를 취소할 수 있는 '수강학점 취소' 기간이 시작된다. '수강학점 취소'는 '학점포기'와 달리 강의를 다 듣기 전에 수강을 포기하고 학기말 성적이 나올 때 해당 강의의 성적이 기입되지 않는다.

'학점포기'제도는 과목을 이수해 성적까지 부여받은 후, 만약 해당 학생이 성적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해당과목 자체를 삭제하는 제도다. 학점포기 제도는 졸업 전 최대 6학점까지만 포기할 수 있고, 이전보다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돼 '수강학점 취소'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반해 '수강학점 취소'는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수강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매우 간편하다.

수강학점 취소기간 타 대학 비해 짧고 조건 엄격

현재 우리학교의 수강학점 취소기간은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동안 신청한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해당 과목을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언뜻 보면 충분히 강의를 들어본 후 보다 원하는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기간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강의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강 위기에 놓이거나 15학점 미만인 경우 취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강신청 정정기간과 수강학점 취소기간을 합친 2주 동안 수업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수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강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2번의 수업만 듣고 결정해야 하는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의명을 요구한 A학생은 "정정기간 때 해당 강좌를 담지 못한 경우 1~2번 수업

을 듣고 계속 들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1주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B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때는 몰랐지만 몇 번 들어보니 신청한 영어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취소하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취소할 경우 15학점 미만이여서 결국 학점포기를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점포기'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짧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도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수강학점을 취소하면 차기 학기에 3.9 학점을 넘어야 추가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다.

우리신문이 서울 주요 대학의 수강신청 기간, 조건, 불이익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대학 6군데 중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수강신청학점 취소 가능기간이 한 달에서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취소 신청 가능 조건과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학교도 있었다. 서강대에 재학중인 C양은 "학생이 신청한 수업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강의계획서만으로 확인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사실상 개강 이후 1주일 동안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많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과 측은 "개강 이후 2주 동안 출석부가 확정되지 않아 수업 분위기나 팀별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주일도 길다고 말씀하시는 교강사 분들도 있다"며 "오랫동안 토대를 닦은 제도이고, 현재 최상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강학점취소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학사지원과 측은 "이미 불이익 없이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정정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 강의를 듣고 싶었던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 때문에 수강학점 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명	기간	불이익
경희대	정정 이후 1주일	학점 아월 및 초과 수강신청 불가 / 졸업유예자 등록금 환불 불가
성균관대	개강 달의 마지막 주 동안	학점이월 불가 / 등록금 환불 불가
중앙대	개강 달의 마지막 주 동안	없음
이화여대	개강 달의 마지막 주 동안	없음
연세대	개강 한 달 후 3일간	없음
서강대	정정 이후 1달	없음
서울대	중간고사 이전	없음

V.O.U 소개 | V.O.U 뉴스 | 오디오방송 | 영상방송 | 특별방송 | V.O.U 커뮤니티

(AD 시사) 당신의 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점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AM : 08:20 ~ 08:55 PM : 12:10 ~ 01:00 PM : 05:35 ~ 06:10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 www.khu.ac.kr media@khu.ac.kr

The University Life

Campus People Feature Culture Opinion Community

Traditional Markets Reviving and Growing
At 4 a.m., before the sunrise, all the merchants are awake and busy preparing for the start of their business at Noryangjin fisheries ...

Kyungheeian
How Tough Is Your Military?

KHU Life
Housing • No Contents.
Place • No Contents.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의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퍸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 개의 해외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경희대학교 대학생 활사